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퍼레이드(parade)’는 축제나 축하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심을 화려하게 줄지어 걷는 일을 뜻한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자 특별한 장소에서 기념하는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행진을 넘어 자긍심을 고취하며 결속과 연대의 상징으로 비취지곤 한다.

1970, 80년대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 대표로 자리잡은 광주 동구 충장축제다. 금남로와 충장로, 예술의 거리에 다양한 부스가 들어섰고,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됐다. 올해는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옛 정취와 감성을 되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백미를 찢자면 뭐라해도 퍼레이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협업을 통해 여성마칭밴드가 선두에 서고, 매직포레스트 플라워 킴, 보석세공사, 토퍼어리 캐릭터 등이 뒤따랐다. 마지막 날엔 13개 행동동 주민들이 동화 속 주인공으로 분장하고, 전국에서 온 경연팀도 함께 하며 도심을 거대한 세트장으로 만들었다.

2025 프로야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대망의 한국시리즈가 눈앞이지만 지난해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예상 밖 부진으로 ‘가을 야구’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돌아보면 광주의 심장부로 구도심이 가장

타이거즈 카퍼레이드에 대한 추억

변성했던 일원에서 ‘V12’ 달성을 축하하는 카퍼레이드가 열려 환희에 휩싸였다. 금남로 57가에서 출발해 5·18민주광장까지, 1만여 명의 행렬로 장관을 이뤘다. 선수단은 사면이 개방된 2층 버스에서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해태 시절 4연패를 달성했던 1989년 이후 35년 만의 감쪽 이벤트였다.

가을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서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당시의 감격을 회상하며 아쉬움을 삼키고 있다.

KIA는 올 시즌 막강한 선두권의 전력을 유지해 2연패가 유력시된다는 전망을 비켜가 8위로 수직 추락, 참담한 성적을 냈다.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포스트시즌 관람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범호 감독 등 코치진의 리더십, 책임을 묻는 팬들도 그만큼 늘었다.

지역 언론들도 흥행 일색으로 결산 기사를 쏟아냈다. 대체적인 지적을 종합하면 이렇다. 특유의 DNA인 악바리 근성, 강인한 투지의 실종이다. 응집력과 무게감이 크게 떨어져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았다. 연거푸 신화를 작성한 극강의 해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공격의 핵 김도영을 비롯한 주축 선수의 장기 결장이 컸던 게 사실이나 훈련 부족과 운영 허점 등 전략적 부실이 드러났다. 타자가 잘 치지 못했고, 투수가 잘 던지지 못했고, 수비도 실수를 연발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도 번번이 무너졌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를 아물고 더 뛰어야 했다.

오죽하면 2군 출신의 분전에 ‘함평 타이거즈’라고 불리기도 했다. 전남 함평에는 이들

의 전용구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감독은 “최고의 팬들 덕분에 우승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서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전통의 명문 KIA 타이거즈의 추락은 1천만 관중 시대를 연 대한민국 최고 프로스포츠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감소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고민이 깊힌다.

지나고 보니, 비록 가난했어도 배부르고 행복했었다. KIA는 초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선수단은 웨이트와 보강, 러닝 등으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11월에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지옥훈련’이 펼쳐진다. 2026 시즌은 많이 달라야 할 것이다.

가을의 한복판, KIA 타이거즈의 황금 퍼레이드가 재연돼야 한다. 초대형 콘서트와 다름없는 최고의 축제로 선물해야 한다. 왕조의 재건을 기원한다.

1983년, 1986~1989년, 1991년, 1993년, 1996~1997년, 2009년, 2017년, 2024년. 한국시리즈에 12회 진출해 모두 정상에 올랐다. 역대급 최다 기록이다. 1982년 프로야구 창설과 함께 1980, 90년대 리그를 평정한 절대강자였다. 심장이 웅장해지는 고유명사가 됐다.

앞으로 정갈 이기는 ‘실리야구’를 해야 한다. 실패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타이거즈 역사에는 광주의 한, 설움이 배어있다. 그러면 서 오랜 자부심이다. 응원 가요에 힘찬 울동을 섞어 열광하는 까닭이다. ‘비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시민들은 목 터져라 부르고 싶다.

웰니스·치유관광, 인구소멸 시대의 새로운 활력 원천

형태의 치유자원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이 산업이 곧 지방의 미래 경쟁력임을 보여준다.

먼저 숲에서 시작되는 산림치유는 지방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천연 향균물질인 피톤치드가 풍부한 산림 환경은 도심에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다. 화순 치유의 숲, 장성 축령산 편백숲,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은 이미 산림치유의 현장으로 자리 잡았다. 산림 속 걷기 명상, 호흡 프로그램, 숲속 숙박 체험이 결합된 형태는 신체·정신 건강 회복의 경제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두 번째는 바다와 갯벌이 있는 해양치유이다. 완도의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풍과 갯벌, 남해안의 섬과 바다는 그 자체가 치유의 인프라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조식단, 바다테라피, 해수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농촌에서 피어나는 치유농업이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낌의 시간, 흙의 온도, 땅의 향기. 이것이 바로 치유농업의 본질이다. 강진과 해남에서 슬로푸드 체험과 농가숙박을 결합한 체류형 농업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흥에서는 약초 재배와 한방 족욕, 약초찜질 등 한방치유농업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정원치유다. 정원은 관광과 치유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정원치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식물향기·정원요가·월에테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사람들에게 ‘마무는 쉼터’이자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의 공간, 관광객에게는 심리적 회복의 공간이 된다.

이러한 치유산업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자원이 지방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숲은 도심에 없고, 바다는 해안에 있으며, 농업은 농촌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치유산업의 중심축은 지방이며, 이 산업이 성장한다면 지역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회복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다. 지역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져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 그것이 바로 치유산업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관광연구학회는 2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웰니스·치유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제정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과 K-웰니스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기반 웰니스·치유관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웰니스·치유관광은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 정원치유 등 다양한 치유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융합형 지역관광 발전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융합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치유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은 지역을 살린다.”

농산물 절도, 관심·예방이 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도난 이후의 대응’보다 ‘도난 이전의 예방’이다.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수확물을 보관하거나 임시로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마을 진입로와 주요 지점에 설치된 방법 CCTV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셋째, 외지 화물차량이 마을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와 시간, 이동방향 등을 기록하

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보관장고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해야 한다.

농산물 절도는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과 경각심으로 막을 수 있는 범죄다.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서로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빈·장흥경찰서>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남 남해안 치안 공백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해답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해경 관할 조난 및 선박 사고, 선박 입출항 세 지표에서 모두 전국 2위로 나타났다. 또 범죄 발생과 검거에선 각각 1위, 해상 교통 이용객도 2위였다. 2019~2023년 해양 인명 사고는 사망 305명, 실종 123명, 부상 1천588명에 달했다. 전체의 64.9%가 여선 관련이며 이 가운데 41.9%가 전남에 집중됐다.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을 위협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최고 명소로 자리잡았으나 정작 중요한 안전 시스템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연구를 통해 목포·여수·제주·강릉지역의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이 검토됐다. 하지만 목포는 서해해경청이 소재하고 경무관급 서장제 도입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올해 3월에는 강릉해양경찰서가 문을 열었다. 여수서의 기능 분산이 가장 시급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문 의원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여수·광양항이 동북아 미래 비전으로

정부가 제시한 북극항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당위성이 커졌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얼음이 녹으면서 열린 바다의 실크로드다. 대한민국 2대 항만인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를 제외한 화물과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산항과 협력·상생의 파트너로 육성돼야 한다. 때마침 전남도의회는 ‘여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원 교육 등을 규정했다.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품 지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근거도 담겼다.

남해안은 향후 물동량과 선박 통항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면 늘어나는 해상사고 및 범죄에 제대로 대응이 어렵고 인명 구조와 수색, 방제활동까지 지연되는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 고흥해양경찰서를 서둘러야 한다. 급증하는 치안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입지적으로 최적지다. 여수해경의 업무 과중을 분담해야 한다. 더 늦어서 안 된다.

동시다발 대형 사업 광주 재정위기단체에 근접했더니

광주시 예산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에 따르면 채무가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2조1천675억원에 달하고 비율도 23.63%(행정안전부 1분기 집계)로 위기단체 지정 기준(25%)에 근접했다. 이 의원은 세입 증가율도 7%로 추계했으나 광주연구원이 권고한 14%보다 5배 이상 과다했다며 2천3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24년 한 해에만 2천30억원, 누적 8천6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는 ‘눈속임’이라며 기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재원처럼 전용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광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호남고속도로 확장, 인공지능(AI) 단지 조성, 글로벌대학 육성 등 대형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중이다.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한 수입 감소, 시대적 추세인 사회복지 비용 증가 등과 맞물려 채무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광주시는 원론적 답변을 내놔다. 눈덩이로 불어나는 빚더미에 대해 다소 안일한 시각이다. 오롯이 세금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며, 시민이 떠난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과 다소 괴리돼 있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추세라면 법적 위기단체 지정이 현실화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공간을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의원들의 제안처럼 지금이라도 지방재정 강화, 세입 추계 현실화, 기금 운용 투명화 등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비 확보 등 세부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채무 상환 로드맵,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낱알이 공개해 공유해야 한다.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작해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인 중요 현안들이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 재정 위기단체로 추락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광주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실효적 대안을 찾아야 하겠다. 일부 사업과 행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총체적 부실에 서비롯된 위기다. 광주시의 낙관적 태도는 분명 잘못됐다.

다카시 광장

공존의 길, 묻다

위해속

같은 하늘을 품고
닿는 방식은 달라도
서로의 숨이 되어 햇살 나누고
바람의 울음을 삼킨다

정답 없이도 우리는 계절이 된다

※시작노트
나무에 기대어 오르는 담쟁이의 모습에서,
누군가는 기생이라 말할지언정
나는 공존을 보았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
그들도 같은 하늘 아래
함께 계절을 살아간다.
서로의 숨이 되어주는 존재들,
우리에게 지금 말 걸어온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독자투고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피해 금액은 무려 47억4천만원에 달한다. 수확철인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농산물 절도 예방이 중요한 시기다.

농민에게 농산물 절도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는다.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정성껏 일군 땀의 결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만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농산물은 농민뿐 아니라 경찰과 지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무엇